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6차시 : 광복~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광복 ~ 대한민국정부수립 대내외적 정국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 12.)

-미/영/소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의 독립문제 협의
이 회의에서 미국은 ()을, 소련은 ()을 제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은,
1. 민주주의 () 수립
2. () 설치
3. 최대 5년간의 ()가 결의

1. 한국을 독립국으로 부흥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
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조건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창설한다.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운수·농촌 경제
및 한국 인민의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한국 임시 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한 방책들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한 미
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한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
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3. 한국 인민의 정치·경제·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한국
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한국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
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 -

but, 회의의 결정안이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일보**의 잘못된 보도
&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채

신탁통치 실시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

-한국인들은 신탁통치를 다시 식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거세게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임.

⇒ 이에 대한 반응

김구, 이승만 등 우익세력 : 신탁통치는 한국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결정!
신탁통치 반대운동

중도, 좌익 : 초기에는 반탁, 이후에는 찬탁

임시정부 수립 등 회의의 모든 사항이 발표된 이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여운형 등 중도세력 - 미소공동위원회에는 협조,

신탁통치는 후에 논의할 것 주장

#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 3. ~ 1946. 5.)

남한은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우익과 좌익의 대립

미국과 소련은 1946.3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
미국과 소련은,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대립]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에

소련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만!

(좌익세력만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키겠다는 의도)

미국 ;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정당과 사회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겠다는 의도)


이 미국과 소련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무기한 휴회

※ 동아일보 보도내용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삼팔선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주장

	한국사	IV. 대한민국의 발전 36차시 : 광복~대한민국정부수립	학번	
	임종일 T		이름	

#이승만의 정읍발언 (1946. 6. 4.)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하자
남한만 단독정부 수립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좌우합작운동 (1946. 7.)

-미소공위 결렬 & 정읍발언으로 [단독 정부가 수립될 위기]
-주도 :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펼침
※ 미군도 좌우합작 위원회를 지원

-좌우합작위원회는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등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절충]

⇒ 좌우합작 7원칙 발표

미군정은 이를 토대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구성
BUT,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세력
& 박헌영 등 좌익세력은 불참, 좌우합작 7원칙에도 입장차이

한국민주당 ; 토지개혁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다!
반탁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 ; 차라리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좌익 ; 친일파 처단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토지개혁의 '유상매입'방법이 지주의 이익을 위한 것!
So, 좌우합작운동 지지부진, 냉전 본격화, 미군정의 지원도 철회
& 여운형의 암살 → 좌우합작운동 중단

#2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 5.)

[참여 단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

→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UN총회**로 넘김 (1947. 9.)
→ 소련은 이를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불참
UN총회
: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한반도에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
→ 총선거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UN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
but, 소련은 38선 이북지역으로 UN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

→ UN소총회

: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선거 실시 결의

#남북협상 시도 / 김구, 김규식 (1948. 2.)

-김구, 김규식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 등 북한지도부에 남북 정치요인 회담을 제의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만남 - 남북 협상
협상결과
: 통일국가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 발표
but, 미국, 소련 모두 이 합의안 무시
북한 역시도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음
유엔도 단독 선거를 철회하지 않음 - 분단은 피할 수 없었음.

★ 해방이후 주요인물 정치성향

좌	중도	우
박헌영	여운형	김구
김일성	김규식	이승만
김두봉	안재홍	김성수

★좌우 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 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 개혁에 있어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입법 기구가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가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 행동을 일절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